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10호

I 수출용 감귤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II 최초 선박 수출로 태국 고구마 시장 개척



III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49.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

- 신선 6.1억불(△3.2%), 가공 30.5(△3.2%), 수산물 12.7(△9.5%) -

- '23년 5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4,918.8백만불
 - (신선) 인삼류(104.2, 10.6↑), 김치(66.5, 1.5↑) 증가하였으나 채소류(136.9, △1.7), 과실류(133.8, △1.8), 닭고기(35.5, △2.9) 감소
 - (가공) 면류(453.6, 9.7↑), 음료(238.3, 2.8↑) 증가하였으나 과자류(261.6, 0.3↑) 보합, 커피조제품(136.0, △7.0), 낙농품(67.6, △10.1) 감소
 - (수산물) 김(328.6, 8.6↑), 굴(48.4, 31.0↑) 증가하였으나 전복(23.3, △3.0), 참치(224.5, △15.6), 명태(23.5, △80.6) 감소
- * 23년 5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3.6% 감소한 2,530.6억불

< '23년 5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2(연누계)		'22년 5월(A)		'23년 5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951.7	11,962.3	2,174.2	5,171.8	2,029.8	4,918.8	△6.6	△4.9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1,765.1	3,773.7	1,717.0	3,653.7	△2.7	△3.2
○ 신선	532.1	1,576.6	246.7	628.2	228.6	608.3	△7.3	△3.2
○ 가공	3,493.6	7,247.1	1,518.5	3,145.6	1,488.4	3,045.4	△2.0	△3.2
□ 수산물	926.0	3,138.5	409.1	1,398.1	312.8	1,265.0	△23.5	△9.5

- CIS·몽골(187.9, 27.1%↑) 증가세이나 중국(877.6, △0.4), 일본(870.6, △1.6) 약보합, 미국(703.4, △11.1), EU·영국(291.2, △20.2), 아세안(999.4, △6.1) 감소
 - (중국) 인삼, 음료 등 수출 상승세이나 수산물 수출 감소세 지속
 - (일본) 신선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며 수산물 증가폭 축소
 - (미국)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아세안) 인삼류, 음료, 조제분유 등 가공식품 수출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유럽) 유럽 복합식품 수입 규정 적용의 본격화로 수출 감소세 지속
 - (CIS) 연초 수입 확대와 전년 동기 전쟁 발발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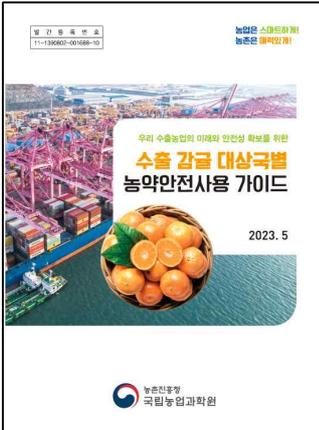
< '23년 5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3,129.3	2,160.7	1,632.6	2,431.8	879.5	443.6	318.3	755.5	396.5	241.7
'225월(A)	1,267.1	884.4	792.5	1,064.3	375.7	196.5	141.3	364.6	147.9	83.0
'235월(B)	1,249.5	870.6	703.4	999.4	341.9	208.1	125.2	291.2	187.9	111.3
증감률(B/A)	△1.4	△1.6	△11.2	△6.1	△9.0	5.9	△11.4	△20.2	27.1	34.1

농진청 이슈



수출용 감귤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감귤 생산 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감귤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감귤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61톤, 344만 2천 달러로, 미국, 대만,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수출국(대만, 미국,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에 수출할 감귤을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을 담아 농업인이 수출 대상국에 맞게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과정에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사례와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수록해 농가와 수출업체 등

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책자는 농가와 수출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최초 선박 수출로 태국 고구마 시장 개척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선도유지 기술을 적용한 장기저장 고구마를 선박으로 태국에 최초 수출하며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태국은 일본, 베트남 등에서 연간 15.5백만\$ 가량 고구마를 수입하는 시장임에도 국산 고구마는 그 동안 항공을 통해 제한적인 수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고구마에 대한 관세(30%)가 철폐되며 시장이 개방되었고, 국산 고구마의 전반적인 품질이 높아졌다. 또한, 환경기체조절(CA, 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수송 기술개발로 선도유지가 가능해졌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생산농가, 수출업체, 컨테이너사 등과 협력을 통해 수출을 진행했다. 이번 고구마 수출은 해남과 여주에서 생산된 국내육성품종 '소담미' 등 총 3.5톤으로 20피트(Ft) CA컨테이너에 선적해 선박으로 약 15일이 소요되었다.

수출 이후 태국에서 실시한 고구마 품질 검수 결과 판매가 불가능한 부패과는 1%에 불과했다. 판매가격은 일본산 고구마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1.7만원/kg으로 책정해 현지 프리미엄 매장과 도매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아울러 햇고구마가 생산되는 11월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협업을 통해 태국 K-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산 고구마를 홍보하고, 프리미엄 매장에 한국산 고구마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검역본부,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검역 간담회를 5월 18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공유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및 품목별 수출연합 조직의 현장 의견 청취 등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동남아 시장의 수출검역 요건 개선과 신속한 수출검역 서비스 제공, 고구마 등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출 협상 추진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검역본부는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국장 권택윤)과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농산물 수출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업무협약을 5월 18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출농산물 종합병해충관리, 국가 간 검역 협상 수출유망품목 선정, 수출농산물의 검역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 수출검역단지 종합기술지원 및 전문수출단지 육성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기술협력, 자문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수출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수출업체, 농업인 등 수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